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학번		학 번	
학과/전공	중국학과	파견대학	광둥외어외무대학교
파견기간	2025년 1학	파견국가	중국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익이 참여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한 후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33@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파견대학명_본인 이름_학번**"으로 변경하여 송부 ※**마감일: 2025. 6. 30.**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분량: 0.5~1장)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현지대학에 지원할 때의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 제출한 신청 서류 목록과 각 서류 준비 과정
- 현지대학의 신청 절차 및 전체적인 진행 일정
- 신청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

2. 파견 전 준비 사항 (분량: 0.5~1장)

- 출국 전 준비한 내용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비자 발급 과정, 소요 시간, 유의할 점
- 항공권 예약, 현지 도착 후 숙소까지의 이동 방법
- 가져가면 유용한 생필품, 교통카드, 통신 등 현지 생활 준비물

3. 수업 정보 (분량: 1장)

- 교환학생으로 수강한 수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수강한 과목과 각 과목의 주요 내용
- 수업 분위기 (예: 수업별 학생 수, 발표·과제 중심 등)
- 수업 난이도, 어학 능력 요구 수준

4. 캠퍼스 생활 정보 (분량: 1~2장)

- 학교 안팎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주세요.

-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 캠퍼스 시설 및 서비스

- 필드트립, 동아리, 학생회 등 참여한 활동
- 학교 주변 맛집, 쇼핑 장소, 관광지 등 유용한 지역 정보

5. 생활비 및 지출 (분량: 0.5~1장)

- 생활비와 지출 패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기숙사 종류와 월별/학기별 비용
- 식비, 교통비, 여행비, 기타 개인 지출 등

6. 자기평가 (분량: 1~2장)

- 교환학생 경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 교환학생 기간 동안 얻은 점, 성장한 부분
-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왜 필요했는지
-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극복 방법

■ [자유 서술 (선택 사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기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예: 복수전공, 졸업요건, 어학능력, 재정적 부담 등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 광동외어외무대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었다. 따로 종이 서류를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학교 측에서 안내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했다. 신청 시에는 2025년 1학기에 수강할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고 여권번호, 가족관계, 비상연락망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들이 있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되고 그 후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입학허가서를 기다리면 되었다.

전체적으로 복잡한 과정은 없었지만 입학허가서가 생각보다 늦게 나와서 약간 긴장했던 기억이 있다. 중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입학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해서 허가서가 늦게 나오면 비자 발급 일정에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가서가 예상보다 늦게 와서 비행기 티켓 예매와 비자 예약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살짝 불안했다.

기숙사 신청은 내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었고 한림대학교 글로벌교류센터의 담당자 분이 먼저 몇 인실을 쓸 지 물어보신 뒤, 그 내용을 광동외어외무대 측에 전달을 해주셨다. 처음에는 비용적인 부분만 보고 4인실을 선택했다. 2인실과 비교했을 때 기숙사비가 절반 정도 저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 2학기에 이 학교로 먼저 파견을 다녀온 선배가 4인실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고 조언해주었다. 공간이 협소하고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

들과 함께 지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결국 2인실로 신청했다. 실제로 생활해보니까 2인실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수업 반 배정을 위한 레벨테스트는 출국 전 1월 10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학교 측에서 공지한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화상통화를 통해 테스트를 봤는데 한 명씩 선생님과 영상으로 대화하는 방식이었다. 테스트는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고, 가벼운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주어진 본문을 소리 내어 읽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광동외어외무대의 신청 절차는 간단한 편이었고,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입학허가서 발급 시기나 비자 준비 같은 부분에서는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일정에 여유를 두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International Student Online Application Portal

Application Query

Apply for Department: School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Business

Apply for Major: International Business(English Instruction)

Teaching Language: English

Study Plan Name	Department	Major	Teaching language	Apply deadline	Notes	Operation
General Visiting Student	School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Business	International Business(English Instruction)	English	2016-06-30 23:59:59		Apply
General Visiting Stud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ternational Business(English Instruction)	English	2016-06-30 23:59:59		Apply
General Visiting Stud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Chinese language	Chinese	2016-06-30 23:59:59		Apply
General Visiting Student	School of Business	Business Administration	English	2016-06-30 23:59:59		Apply

8. 选择学习期限，一学期或一学年 Choose the study duration, one semester or one year

Language Proficiency

English Proficiency

*Language Proficiency: Excellent

TOEFL: [] GRE: []

GMAT: [] IELTS: []

9:29

31

< 1

202501 level test

师生

...

1개의 답변

el

Elina(el****@yandex.ru)

我准备好了。 我的名字是 Platko Elina。

文

1개의 답변

Th

Thanvalai(Thanvalai)

I'm Ready, my name is Thanvalai Assavachainimitr

1개의 답변

金瑞熙 (金瑞熙)

瑞熙

我准备好了 我叫金瑞熙

1개의 답변



Amita NAKHONESIDFISH(黄玲玲 amita NAKHO...)

我准备好了 我的名字是 黄玲玲 (Amita Nakhonesidfish)

1개의 답변

ia

老师

许老师 (许老师 Antonia)

同学们好，我们的测试马上开始，我们将按准备的顺序进行测试



Le Thanh Huyen(...)



2. 파견 전 준비 사항

일단 비자 발급 과정은 예상보다 매우 수월했다. 평소에는 비자를 받을 때마다 직접 비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편인데, 이번이 가장 간단하게 느껴졌다. 중국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게 되면서 신청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도 여유롭게 방문해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어 전반적으로 쾌적한 경험이었다.

항공권은 광둥외어외무대에서 권장한 도착일인 6월 28일 일정에 맞춰 예매했다. 마침 같은 학교로 함께 파견되는 학생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일정을 맞춰서 출국했다. 바이윈 국제 공항에 도착한 뒤에는 광둥외어외무대학교 측에서 파견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배정한 중국인 학생들이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학교 측이 미리 예약해 둔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약 30분 정도 소요되어 무사히 학교 기숙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 직후에도 중국인 학생들의 안내를 받아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었다.

현지 생활 준비물은 중국의 특성상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많았다. 중국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결제, 교통, 배달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트래블월렛이나 해외 인출 수수료가 없는 카드가 있다면 매우 유용하다. 중국의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이용하려면 현지 계좌 또는 알리페이에 연동된 카드가 필요한데, 현지 계좌가 훨씬 편리하다. 특히 알리페이는 200위안 이상 사용할 경우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위챗페이가 더더욱 효율적이다.

생활용품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다. 일단 광저우는 매우 덥고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벌레가 많고 그 중에서 모기가 가장 많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모기장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나도 도착 후 바로 모기장을 구입했는데, 이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선크림은 필수이다. 평소에는 선크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광저우의 햇볕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에서 샤워기 필터를 미리 챙겨갔는데, 실제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중국 현지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굳이 한국에서 무겁게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2:10



73

kr.mytrip.com

mytrip



서울 → 광저우

2025년2월28일 • 편도 • 1명 승차

주문 번호: 1047-824-607

항공사 예약 번호

개요 여행 관리 체크인 여행 정보 추가 >

여행 일정

출발 • 2025년2월28일

08:55



12:05

서울 (ICN)

4시간 10분

광저우
(CAN)

여행 관리



申请编号: 20241000088

广东外语外贸大学 外国留学生录取通知书

女士

国籍: 韩国

护照号: M344J8442

出生日期: 2004年7月31日

我们高兴地通知你, 经审核你的申请材料, 我校已决定录取你作为**普通进修生**到我校**留学生教育学院**学习**汉语言**专业, 学习期限自**2025年2月27日**起至**2025年6月27日**止。

如果你自愿遵守中国政府的法律和学校的规章制度, 与各国同学友好相处, 请你持本录取通知书和DQ表(学习不满180天)或JW202表(学习180天以上)前往中华人民共和国驻贵国使(领)馆办理来华学习(X)签证。请你于**2025年2月27日**至**2025年2月28日**到广东外语外贸大学留学生教育学院报到。如因故不能按时报到, 必须事先以书面形式征得我校同意, 否则将视为自动放弃入学资格。

学生本人签名:



注:

- 请根据邮件通知缴纳学费, 来华入境后, 请立即到我校留学生教育学院(白云山校区第七教学楼102室)办理报到手续, 交验护照原件、录取通知书、DQ表或JW202表等相关材料。报名费一经支付, 不予退费。学费在学期开始前申请, 经学院审核通过后可退80%。如涉及违法违规行为无法继续学习, 所有费用不予退还。
- 入境后请于24小时内到居住地所在的派出所办理《外国人临时住宿登记表》。如在校内居住, 请在103办公室办理。
- 学习不满180天者, 请持有DQ表办理X2签证入境, 学习180天以上者, 请持有JW202表办理X1签证入境。X1签证持有者, 务必于入境之日起30天内办理身体检查及换签手续。关于办理签证及开学的各项事宜, 请务必留意学院的通知。
- 招生办公室联系电话: 0086-20-36207141、36207142, 传真: 0086-20-36209309, Email: iie@gdufs.edu.cn.

3. 수업 정보

광동외어외무대학교에서의 수업은 전체적으로 균형 좋게 이루어져 있었으며, 실질적인 중국어 능력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나는 중급 수준의 중국어 반에 배정되어 총 다섯 과목을 수강했다. 각각의 과목은 Intermediate Chinese Integrated Course, Intermediate Oral Chinese, Intermediate Chinese Reading, Intermediate Chinese Listening, Intermediate Chinese Writing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든 수업은 중국인 선생님에 의해 전면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수업은 Intermediate Chinese Integrated Course였는데, 말하기, 듣기, 읽기 등 다양한 언어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수업이었다. 이 수업은 우리 반의 담임 교수님이 직접 진행하셨고, 매 수업마다 본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본문 속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 등이 있었다. 단순히 단어나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수업 방식이 인상 깊었다. 특히 수업 분위기가 매우 자유로워서 중국어 실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었다.

Intermediate Oral Chinese 수업은 말하기에 중점을 둔 수업으로, 본문을 읽고 이에 대해 선생님이 질문을 하며 학생들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나 말투를 주로 수업했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회화 능력이 늘게 된 것 같다. 또한 본문의 캐릭터를 역할 별로 읽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대비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었다.

Intermediate Chinese Reading 수업은 HSK 시험 대비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었다. 본문을 읽고 이해한 후,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독해 요령이나 오답 피하는 팁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정답을 맞추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HSK를 준비하는 나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Intermediate Chinese Listening 수업 역시 HSK 대비 중심의 수업이었다. 특히 리스닝 초급 파트에 집중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녹음을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한 뒤 문제를 풀거나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초반에는 속도가 다소 빨라 어렵게 느껴졌지만, 반복적으로 듣고 연습하면서 귀가 트였다.

Intermediate Chinese Writing 수업은 주로 HSK 시험의 마지막 작문 파트를 대비하는 수업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과제가 있었다. 글의 구성 방법, 논리적인 전개, 문법적인 표현 등을 다루었고, 특히 피드백이 매우 꼼꼼하게 제공되어 글쓰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매주 과제를 제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자 쓰는 습관도 생겼고 표현력도 늘었다. 특히 이 수업을 통해 문장을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쓰는 법을 익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작문파트가 약했는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했다. 같은 반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함께 들었고, 수업별로 선생님만 바뀌는 형태였기 때문에 반 친구들과의 끈끈한도 높았다. 선생님들 역시 모두 매우 열정적이셨고, 학생들의 참여를 잘 유도하셔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들어 질문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과제와 발표의 양은 지나치게 많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과제나 수업 중 발표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또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 매우 자세해서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덕분에 스스로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었다.

수업 난이도는 중급 수준으로, 중국어 기초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수업이 전면 중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고, 특히 쓰거나 듣기 수업에서는 속도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제를 열심히 한다면 금방 적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실력도 는다.

광동외어외무대에서의 수업은 참여 중심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3 挨: 挨打 挨骂 挨批评 (criticize) 挨饿

- 他最近学习不努力，昨天挨老师批评了。
- 小明哭得很厉害，因为他刚才把家里的花瓶打碎了，挨爸爸打了。

14 训

他上课总是迟到，老师刚才训了他一次。
他们公司的老板常常大声训人。

挨训

刚开始工作的时候，常常挨训。

4. 캠퍼스 생활 정보

일단 기숙사에서 내가 배정받은 방은 2인실로, 공간이 넓고 쾌적했다. 이전에 있었던 하얼빈공업대학교의 기숙사보다 확실히 더 넓어서 짐을 풀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거의 없었다. 책상, 옷장, 침대 모두 잘 갖춰져 있었고, 방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해주셨다. 하지만 구조상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바로 화장실과 샤워실, 세면대가 모두 방 안이 아니라 베란다 쪽에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샤워실은 오픈된 베란단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기숙사는 5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첫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오르느라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구조에도 익숙해졌다.

기숙사 생활에서 가장 특이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온수카드 시스템이었다. 중국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처음 사용하는 나에겐 낯설었다. 정해진 시간(점심 12시 반~1시 반, 저녁 4시 반~12시 반)에만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샤워를 하려면 찬물로 해야 했다. 카드를 미리 충전해 두어야 사용 가능했는데, 카드를 깜빡하고 충전하지 않아 찬물 샤워를 한 날도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그런 것들도 적응이 되었다.

기숙사 외에도 캠퍼스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도서관은 넓고 조용해서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 특히 시험기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좌석이 충분해서 자리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점은 외국어 전공 대학답게 다양한 국가 언어로 된 책들이 구비되어 있었던 점이다. 한국어 책은 물론이고,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서적까지 꽤 많이 있었고, 덕분에 중국어 공부 외에도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었다.

학교 식당은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거의 매일 이용했다. 마라탕, 찹쌀떡, 한식 등 선택지가 많았고, 10위안 내외면 충분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 나는 거의 항상 마라탕과 중국식 찹쌀떡인 찹쌀떡을 먹었다. 또 배달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중국의 배달앱인 메이탄을 이용하면 학교 북문 앞에서 쉽게 배달을 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는 학교가 정해진 가게는 기숙사 앞까지 배달이 와서, 자취보다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내부에는 마트, 카페, 과일 가게, 세탁소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모두 있었다. 다만 가격이 학교 밖보다 살짝 비쌌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종종 학교 바깥으로 나가곤 했다. 학교 북문 쪽으로 나가면 다양한 음식점과 마트, 약국 등이 모여 있어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다.

캠퍼스 내부를 돌아다닐 때는 전기 자전거인 띠엔둥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나도 처음에는 걷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친구의 띠엔둥을 타고 이동하게 되면서 훨씬 편리함을 느꼈다. 캠퍼스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특히 더운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띠엔둥이 큰 도움이 됐다. 처

음엔 조금 무서웠지만 금방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내가 직접 사서 타볼까 고민도 했다.

광저우는 정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도시다.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여러 관광지를 다녔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광저우 타워였다. 밤에 보면 정말 예쁘고, 타워 밑에 있는 강은 잔잔해서 산책하기에 딱 좋았다.

또 자주 갔던 곳은 텐허(天河)였다. 광저우의 중심 상업지로, 백화점, 쇼핑몰, 카페, 영화관 등이 모여 있는 번화가다. 지하철로 쉽게 갈 수 있었고, 친구들과 주말마다 쇼핑하거나 카페 투어를 하러 자주 갔다. 중국의 유명 브랜드들은 모두 모여 있는 곳이어서 구경하기 좋았다. 그리고 정말 큰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확실히 다른 나라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기도 했다.

하지만 베이징루(北京路)는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 사람이 너무 많고, 관광객을 상대로 한 상점이 많아서 그다지 자주 가지 않았다. 대신 샤미엔다오(沙面島)는 유럽풍 건물과 예쁜 골목길이 매력적이어서 산책이나 사진 찍기 좋은 장소였다. 용칭팡(永庆坊)은 전통적인 중국 거리 분위기가 살아 있어 중국 특유의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예쁜 벽화들과 소규모 갤러리, 디저트 카페들이 곳곳에 있어서 문화적인 감성을 즐기기 좋은 장소였다.

그리고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웬징루에 갔다. 일종의 한인타운 같은 분위기로, 삼겹살 집, 분식집, 한국 마트 등이 모여 있었다.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 비싸지만, 한식이 그리울 때 많이 갔다.

학교에서의 특별한 활동이나 행사 참여는 많이 하지 못해서 아쉽다. 내가 파견된 학기에는 마침 큰 축제나 문화행사가 없어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은 참여 기회가 거의 없었다. 만약 이런 활동이 있었다면 중국 학생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가장 아쉽다. 대신 같은 반 친구들과 소소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다. 특히 함께 수업 듣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식사도 같이 하고 주말엔 함께 놀러 다니며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다.

또한, 캔톤페어에도 갔다. 캔톤페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참가하는 아주 큰 행사다. 원래는 무역이나 수출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처음엔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침 학교에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가보기로 했다.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다. 너무 넓고 규모가 커서 하루 안에 다 둘러보는 건 불가능할 정도였다. 나는 가전제품, 생활용품이 열려 있는 날에 갔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다. 전 세계에서 온 업체들이 많아서 영어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가끔 중국어나 다른 언어로도 응대해줬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특히 신기했던 건 한국 업체도 꽤 많았다. 캔톤페어는 시설 자체도 엄청 잘 되어 있었다. 사람이 정말 많았지만 질서 있게 운영되는 걸 보면서, 중국의 행사 운영 시스템이나 도시 인프라가 꽤 잘 돼 있다는 걸 느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은 수업이나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거라서, 교환학생이 아니면 해보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단순히 구경을 간 게 아니라, 실제 현지 문화를 느끼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와 연

결되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광동외어외무대에서의 캠퍼스 생활은 정말 재미있었다. 처음엔 조금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재미있고 유익했다.





中国进出口商品交易会
CHINA IMPORT AND EXPORT FAIR
Since 1957

37
CANTON FAIR
1957-2025

嘉賓證
Guest Card



广外留学生团
KIM SEOHEE

中国进出口商品交易会
37
证件专用章
098

23

27



86851202502935



5. 생활비 및 지출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한 달에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몰라 여유있게 준비했는데, 실제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계획적으로 지내면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주

로 식비와 생필품 구입에 돈을 많이 썼고, 한 달 기준으로 평균 8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

먼저 기숙사 비용은 선택한 방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광둥외어외무대의 경우, 2인실은 한 학기에 4800위안, 4인실은 2400위안이었다. 처음엔 금액 차이가 커서 4인실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전에 다녀온 선배의 조언을 듣고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 2인실을 선택했다. 실제로 지내보니 나름 쾌적해서 만족스러웠다.

식비는 특별한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한 달에 약 2000위안 정도로 충분했다. 학교 안에는 학식당이 여러 곳 있어서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괜찮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학식당을 이용했다.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중국은 배달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자주 이용하게 된다. 학식당도 배달이 가능했고, 광둥외대점이라고 쓰여있는 식당에서 시키면 기숙사 1층으로 배달이 왔다.

교통비는 생각보다 저렴한 편이었다. 버스는 한 번에 2위안, 지하철은 거리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번 쿼알을 찍었을 때 4위안 정도 나왔다. 나는 매일 이동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통비는 큰 지출 항목은 아니었다. 후이저우라는 도시로 짧은 여행을 갔을 때는 중국 고속 열차(까오티에)를 이용했는데, 왕복으로 약 200위안 정도 들었다. 숙박비는 친구 부모님 덕에서 지냈기 때문에 따로 들지 않았다.

기타 개인 지출은 한 달 기준으로 평균 2500위안 정도였다. 여기에는 생필품 구입, 친구들과 과의 외출, 간식, 기념품 구입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광저우는 마트나 쇼핑몰이 많고, 또 다양한 간식이나 음료가 싸고 맛있어서 생각보다 자주 지출하게 된다.

또 하나 특이한 지출은 온수 카드이다. 학교에서는 일정 시간에만 뜨거운 물이 나와서 따뜻한 물을 쓰기 위해서는 온수카드를 충전해야 한다. 한 번에 40위안씩 충전이 가능하고, 나는 총 100위안 정도를 사용했다. 물을 틀면 10분에 2위안 정도씩 차감되는데, 샤워하거나 세수할 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다.

전체적으로 기숙사비를 제외한 나의 월 생활비는 평균 약 4000위안(한화 약 80만원)으로, 큰 지출 없이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다. 물론 사람마다 소비하는 돈의 양은 다르지만, 중국의 물가가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에는 꽤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



7:28

49

< 5

Weixin Pay



목요일 오후 4:55



Deduction Voucher

Deducted by MASTERCARD

¥ 4.00

Deduction Item	羊城通微信免密支付
Line	二号线-萧岗-六号线-文化公园
Time	2025-06-19 16:22:53
Note	你在羊城通的账号羊城通乘车码免密代扣扣费成功，你可以点击消息管理你的扣费项目

Manage deduction item



목요일 오후 4:58



6. 자기평가

교환학생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해보길 정말 잘했다는 것이다. 출국 전에는 설렘보다 걱정이 더 컸던 것 같다. 2023년에 갔던 첫 중국 생활에서 적응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걱정들이 내가 꼭 잘 해내겠다는 오기를 만들어줬고,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해줬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지냈지만,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엔 작은 문제 하나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처음엔 중국의 모바일 교통수단 결제 시스템 등록도 어렵고, 기숙사 구조나 온수 사용 방식도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점점 더 익숙해지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본과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더더욱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뿌듯하게 느끼는 변화는, 두려움보다 도전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점이다. 원래 나는 익숙한 생활만 하며 지내는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광저우에서는 나와 배경도 언어도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러한 환경에 매일 부딪히며 지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변해가는 나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생각보다 유연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점이다.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예전의 나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데 광저우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럴 틈이 없었다. 비자 발급이 늦어진 일도 그랬고, 기숙사 환경이나 수업 방식도 예상과 달랐지만, 그런 변화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받아들이게 됐다.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나서 나의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한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의 기준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 생각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광저우라는 도시는 내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 곳이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 본 것만으로도 내 시야는 훨씬 더 넓어졌다.

물론 기숙사 환경이 예상과 달랐을 때, 날씨가 너무 덥고 벌레가 많아서 힘들었던 날, 말이 잘 안 통해 답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성장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내게 꼭 필요했던 이유는 중국어를 잘하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스스로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다. 광저우에서 보낸 4개월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겠지만, 분명히 이전의 나와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건 내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앞으

로도 그 경험을 생각하며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관심있게 바라보게 되었다. 실제로 중국에서 살고 공부해보니, 이곳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매력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특히 광저우는 대도시라 그런지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에게 매우 호의적이었고, 생활 또한 오히려 한국보다 편하다는 기분을 느끼면서,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서 장기적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여행이나 교환학생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에서 유학을 연장하거나, 나중에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내가 직접 경험한 중국의 교육 환경이나, 광저우 같은 도시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졌다. 물론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 교환학생을 계기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안에서만 진로를 생각하던 예전의 나와는 다르게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진출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시야 중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건 단순히 학교 수업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직접 살아보고 부딪히며 느낀 경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만약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중국을 단지 공부의 대상으로만 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위의 내용처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큰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든지 내가 광저우에서 보낸 시간은 분명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